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89 호

2024년 4월 17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4 월호 요약
2. 2024 ESG 팀장 네트워크 참가 신청
3. UNGC-NBIM 기업 청렴성 포럼(Corporate Integrity Forum) 개최 안내(5/17)
4. 2024 년도 UNGC 한국협회 총회 결과 공유(4/4)
5. 2024 년도 1 차 실무그룹 연합 미팅 결과 공유(4/4)
6. 자동차 산업 넷제로 정책 추진 라운드테이블 결과공유(3/14)
7.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순환경제로의 전환 세미나 결과 보고(3/8)

■ 본부 소식

1. UNGC, '2024 SDG 선구자(SDG Pioneers) 캠페인' 발표
2. 국제노동기구(ILO), 생활임금 정책에 관한 합의 도출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두산에너지빌리티

■ UNGC & 회원사 뉴스

1. 남자도 여자도 '평균 연봉 1억'...현대차, 성별 임금 격차 또 줄었다
2. 삼성전자, 국제수자원관리동맹 최고등급 인증 사업장 7개로 확대
3. LG화학,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과 화학 업계 저탄소 공급망 구축
4.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사업장 직원 절반이 장애인"...한국타이어의 '상생'
5. "男 직원 육아휴직 의무"...롯데칠성, 매출 3조원 비결은?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4 월호 요약



Monthly Insights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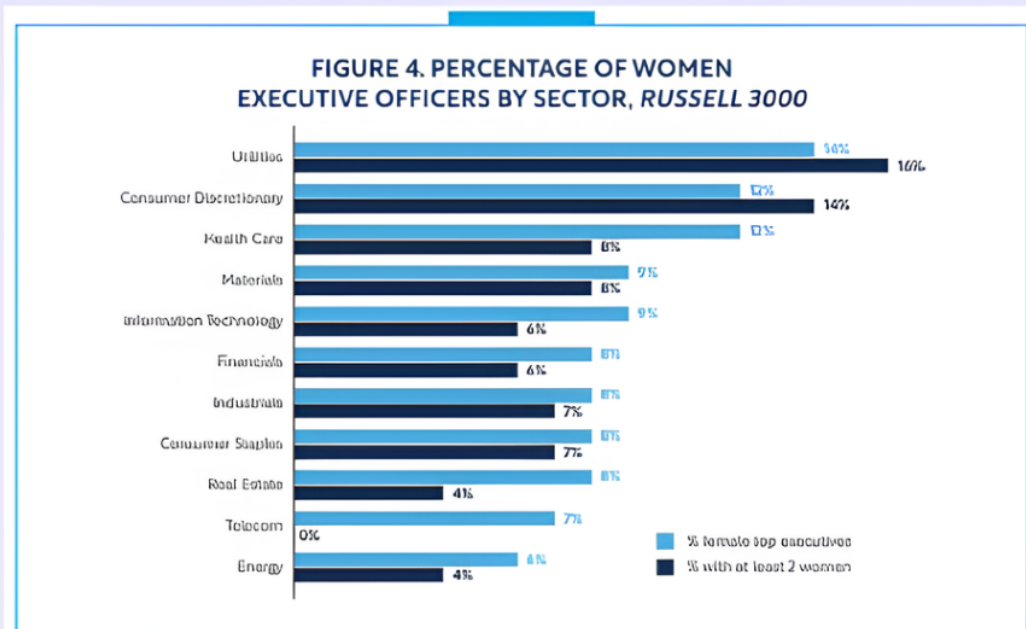
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성에게 투자하세요
2. 전문가 인사이트 : IFC, 넷플릭스
3. ESG 최신 동향 : 임팩트 투자의 효과적인 측정, 넷제로 달성을 위한 AI 데이터 품질
4. 한국협회 소식 | 본부 소식
5.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이번 먼슬리 인사이트는 지난 3월 8일 2024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IWD)을 기념하며 IWD의 글로벌 주제인 '미래를 위해 여성에게 투자하세요 (Invest in women: Accelerate progress)'에 맞춰 기업의 여성 리더십 증진을 위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관행을 수립함으로써 성평등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1. 여성 리더십 증진의 제약 요인

여성은 교육 성취도, 노동력 참여, 이사회 대표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커리어 개발 및 승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임원 직급의 여성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누수 파이프라인(leaky pipeline)'으로 불리며, 조직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성은 최고운영책임자(COO),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관리자(CFO)와 같이 대표이사로 승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게 되는 수익 및 손실 관리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낮으며, 인사 책임자, 법률 고문 또는 최고 관리 책임자와 같은 지원 직책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성 리더십 증진의 제약 요인,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규제의 확산,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모범 사례 및 권고 사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내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에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거래소, UN Women, IFC와 함께 '미래를 위해 여성에게 투자하세요' 라는 주제로 『제3회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은 축사를 통해, 링더벨 세레모니는 전 세계 120여 거래소에서 열리는 자본시장의 대표적 성평등 캠페인이며, 성평등과 ESG 의제 확대에 있어 거래소와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링더벨 캠페인이 기업 내 성평등 및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을 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한국거래소, UN Women, IFC가 함께 개최한 『제 3 회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행사 결과를 공유하고, UNGC 가 UN Women 과 공동 개발한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기반하여 기업의 여성 대표성 증진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기업내 성평등 구현 가속화를 지원하는 UNGC 의 '**타겟 젠더 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프로그램 등을 소개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제시카 슈나벨(Ms. Abhilasha Sahay)

| IFC 여성 금융(Banking on Women) 사업부
글로벌 책임자

제시카 슈나벨은 신흥 시장의 금융기관과 함께 여성 주도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 IFC의 글로벌 투자 및 자문 서비스 포트폴리오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 중소기업을 위해 27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0개 이상의 신흥 시장 국가의 100개 이상 금융 기관에 솔루션을 제공하여 여성 고객을 위한 지속적이고 수익성 있는 금융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IFC 여성 금융 사업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기반으로, 전 세계 신흥 시장에서 최초의 젠더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IFC의 여성 금융(Banking on Women)-글로벌 무역 금융 프로그램, 여성을 위한 주택 및 부동산 금융 이니셔티브,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인 BOW-캐피탈 솔루션 이니셔티브 등 젠더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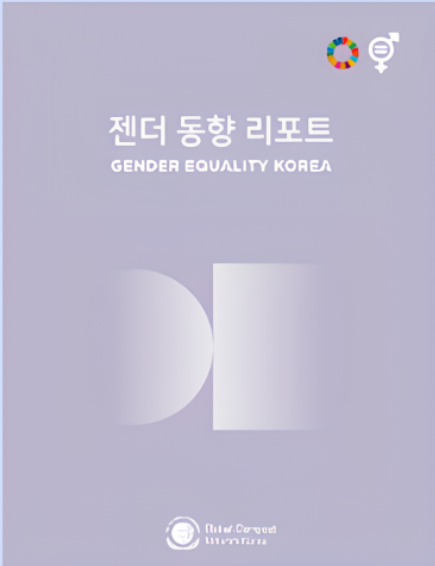
미셸 킹(Ms. Michelle King)

| 넷플릭스 포용성 부서 디렉


미셸은 前 유엔 여성기구 글로벌 혁신 연합(UN Women's Global Innovation Coalition for Change) 대표로 재직시 30개 이상의 민간 부문 파트너십을 총괄하였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포용성 부서 디렉터로 재직 중이며, 유엔재단 청년기 소녀 캠페인인 '걸 업(Girl Up)'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가, 사상가, 비즈니스 리더 인터뷰를 통해 직장내 성평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법을 공유하는 인기 주간 팟캐스트 'The Fix'도 운영 중입니다. 2020년에는 노벨 평화상 컨퍼런스 초청 연사로 참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서 '리더가 직장 내 불평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인사이트>에서는, IFC 여성 금융 사업부 글로벌 책임자인 제시카 슈나벨(Ms. Abhilasha Sahay)과 넷플릭스 포용성 부서 디렉터인 미셸 킹(Ms. Michelle King)을 통해 성평등한 투자 방식과 직장 내 다양성 및 포용성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젠더 & DEI 부문 UNGC 발간물




젠더 동향 리포트
GENDER EQUALITY KOREA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GUIDE
**APPLYING A GENDER
LENS TO SUSTAINABLE
PROCUREMENT**

ACCESS NOW ▶



또한, UNGC는 『젠더 동향 리포트: 기업 내 성평등 증진 및 성소수자 포용』과 『지속가능한 조달에 젠더 렌즈 적용』 가이드 발간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성평등 공시제도와 더불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입각한 기업내 성평등 정책 지침 및 이행방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젠더 렌즈를 적용한 조달 전략 및 관행 등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내 성평등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ESG 최신 동향



넷제로 달성을 위한 AI 데이터 품질



임팩트 투자 재고: 효과적인 측정 및 최적화를 위한 고려사항

<ESG 최신 동향>에서는, AI 도입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및 데이터 품질 향상 사례 등을 분석해보고, 미국의 책임감 있는 투자 전략과 기업의 ESG 및 지배구조 관련 연구와 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인 '모닝스타 서스테이널리틱스(Morningstar Sustainalytic)'의 사이먼 백클린(Simon Vacklen) 기업 솔루션 매니저가 분석한 '임팩트 투자의 전략적인 측정 및 최적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EU, 그린워싱 단속 그린클레임지침 본회의 통과... 그린워싱 규정 어길 시 연 매출 4% 벌금 내야

○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 공표시 입증 및 검증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그린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에 대한 투표가 EU 본회의에서 진행된 결과, 찬성 467표, 반대 65표, 기권 74표로 표결돼 유럽 의원들은 이번 제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린클레임 지침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그린워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EU의 불공정거래행위지침(UCPD) 및 소비자 권리 지침(CRD) 등 유럽위원회의 제안 내용에 포함된다. 이번 지침을 통해, 기업은 탄소 상쇄 제도 사용만을 강조하는 일반 친환경 규정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이외의 친환경 주장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평가 및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업들이 이번 규정을 위반할 시 공공 조달에서 제외되거나 기업 연간 매출의 최대 4%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환경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하고 독립적인 인증 기관의 검증과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에서는, ▲ EU, 그린워싱 단속 그린클레임지침 본회의 통과... 그린워싱 규정 어길 시 연 매출 4% 벌금 내야, ▲ 韓 일하는 여성 환경 평가 '최하위', ▲ EU 공급망 실사법, 적용기준 대폭 완화해 이사회 승인 등 ESG 동향 관련 주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조연경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67)

[자세히 보기](#)

2. 2024 ESG 팀장 네트워크 참가 신청 *선착순 마감



안녕하십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입니다.

최근 국내외 ESG 의무화 규제가 가속화되고, 기업의 전사적 경영 요소에 높은 수준의 ESG 내재화를 요구함에 따라 ESG 팀장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도모하며 기업의 ESG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대내외 소통을 주도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UNGC 한국협회는 **지난 해 9월 'ESG 팀장 DAY'**를 개최하여, ESG 팀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ESG 팀 관리 및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해 참여한 팀장급 실무진들의 긍정적 피드백을 바탕으로, UNGC 한국협회는 **'2024 ESG 팀장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연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에서는 ESG 팀장들을 대상으로 핵심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조직내 ESG팀에 대해 고민하며 함께 학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2024 팀장 네트워크
- 일 시: 1차 - 2024년 6월 20일(목) 15:00~18:00
2차 - 2024년 9월 05일(목) 15:00~18:00
※ 현재는 1차 팀장 네트워크 참석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 대 상: 회원사 ESG 담당 팀장

프로그램 1차 ESG 팀장 네트워크 프로그램

※2차 ESG 팀장 네트워크(9.5.(목)) 프로그램 상세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일시	시간	프로그램
6.20.(목)	15:00~15:05	'5 인사말
	15:05~15:45	'40 [세션1] 팀장 역량 강화 1 - ESG 최신 동향 < 국내외 ESG 동향 및 기업 대응 >
	15:45~16:45	'60 [세션2] 팀장 역량 강화 2 - 기업 사례 공유 < ESG 내재화 위한 팀장의 역할 및 역량 >
	16:45~17:00	'15 휴식 시간
	17:00~18:00	'60 산업별 참여시간 활동 공유 및 네트워킹
	18:00~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내 보안정책 등으로 구글 신청서 접속이 어려울 경우, 기업·기관명/부서/성함/직함/이메일/연락처/저녁 식사 참석 여부를 기재하여 gckorea@globalcompact.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1 차 네트워크 참가 신청

자세히 보기

3. UNGC-NBIM 기업 청렴성 포럼(Corporate Integrity Forum) 개최 안내 (5/17)



ESG 투자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 청렴성과 거버넌스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업은 보다 성숙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정립하고,
기업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NBIM,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와
공동으로 반부패 서밋을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ESG 시대의 반부패 아젠다를 살펴보고, 기업 거버넌스 정책,
전사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문화형성 방안 등을 탐구하여,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5월 17일 (금) 오전 9:00 - 17:00
-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다이아몬드 홀(22층)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09:00 - 09:30	30'	등록 및 네트워킹
09:30 - 09:40	10'	개회사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니콜라이 탕겐(Nicolai Tangen)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대표이사(영상)
09:40 - 10:00	20'	기조연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10:00 - 10:55	55'	특별세션 1: ESG 공시와 윤리경영 이용희 한국기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상임위원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관계자 (TBD) 기업 관계자 (TBD)
10:55 - 11:10	15'	휴식 및 핑거푸드
11:10 - 12:05	55'	특별세션 2: 기업 거버넌스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관계자 [Moderator]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바네사 한스(Vanessa Hans) 민간부문 책임 바젤 연구소 원종현 국민연금 전문위원
12:05 - 12:35	35'	Talk Concert: 성숙한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Moderator] 마금선 SK하이닉스 부사장 박종근 지멘스 코리아 실장
12:35 - 13:35	60'	오찬
14:00 - 17:00	180'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첨단기술 및 통신 부문 반부패 워크샵 -Invitation Only

※ 보안 시스템 등으로 인해 등록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경우, 기업·기관명/부서/성함/직함/이메일/전화번호를 기재하여 gckorea@globalcompact.kr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 사내 보안 등으로 참가신청 링크 연결(구글 서베이)이 불가능할 경우, 수기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시어 gckorea@globalcompact.kr 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장한별 과장, 안일곤 과장 (070-4327-9768, 070-4327-5057 gckorea@globalcompact.kr)

신청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4. 2024 년도 UNGC 한국협회 총회(4/4) 결과 공유

- ☒ 행사명: 2024 년도 UNGC 한국협회 총회
- ☒ 일 시: 2024 년 4 월 4 일(목) 11:00 - 13:30
- ☒ 장 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 남산룸 1&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24 년도 정기총회를 4 월 4 일(목) 그랜드 하얏트 서울 남산룸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180 여 명의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회의 안건을 의결하고, 반기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의 특별강연과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 참여사 세레모니>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2 만 4 천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굳건히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한국협회도 양적 및 질적으로 확장해 회원사를 360 여 개로 확대하는 등 가파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2030 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진전해 나가기 위한 ‘Forward Faster’의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Forward Faster’의 5 대 영역인 생활임금, 성평등, 기후행동, 수자원 회복탄력성, 지속가능금융에 집중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행동의 가속화를 독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 기준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평가시장의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 각 회원사가 ESG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본회의는 이동건 회장의 주재 및 유연철 사무총장의 보고를 통해 △전기 회의 의사록 채택 △2023 년

사업, 결산, 감사 보고 및 의결 △2024 년 사업 계획, 예산안 보고 및 의결 △이사 변경 의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이사 변경과 관련하여 △이동건 UNGC 한국협회 회장, △문형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양일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 △현천욱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연임되었고,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선임되었으며,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사임하였습니다.

본 회의에 이어, 제 8 대 유엔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이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Forward Faster>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습니다.



반기문 명예회장은 “SDGs의 목표 기한인 2030년까지 6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0개의 목표 중 15%만이 정상 궤도에 있다”며, “이와 같은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의 SDGs 목표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새로 발족한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SDGs의 전 세계적 이행을 위해서 앞으로 SDGs 관련 5년의 평가와 향후 10년의 과제를 위한 'Redesign Our Future'라는 연구소를 출범하고 국내외 유수의 기관과 단체에 미래 방향성에 대한 계획을 배포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ESG 추세에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ESG가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로만 작용하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해야 하며, 특히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정보·세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기업은 ESG를 조직 전반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 인류는 보다 다양하고 실현 가능성 높은 방법들을 실행해야

한다”며 그 중 기업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덧붙여 국제적인 경제 활동과 정치 활동에 있어 제일 큰 문제는 인권이라며, 그 중에서도 여성의 인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고, ‘유엔여성기구(UN Women)’을 창설하고 유엔 내 여러 고위직에 훌륭한 여성들을 임명했으며, 여성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기리기 위해 ‘여성권익상(Ban Ki Moon Award for Women Empowerment)’을 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성 문제에 대해 더 열정을 가지고 힘써야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하고 세계 경제도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명예회장은 “단독 기업이 행동할 때보다,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 행동에 참여하고 타 기업들을 독려할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중심으로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 참여사 세레모니>가 진행되었습니다. Forward Faster 는 기업이 2030년까지 5대 행동 영역인 생활임금, 성평등, 기후행동, 수자원 회복탄력성, 지속가능금융에 집중하여 SDGs의 진전을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입니다. 현재까지 총 20개 회원사가 참여 신청을 했으며, 세레모니에는 △금호타이어 △동일고무벨트 △롯데쇼핑 △아모레퍼시픽 △애큐온캐피탈 △SK 텔레콤 △HLB △하나은행 △효성첨단소재 등 9개 회원사가 참석했습니다. UNGC는

지속적으로 Forward Faster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사는 2030년까지 CoP를 통해 서약 영역에 대한 진전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많은 회원사의 관심 속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는 UNGC 한국협회 회원사들과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공유하며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많은 협조와 참여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5. 2024년도 1차 실무그룹 연합 미팅(4/4) 결과 공유

- 행사명: 2024년도 1차 실무그룹 연합 미팅
- 일 시: 2024년 4월 4일(목) 14:00 - 17:30

- 장 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 남산룸 1&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24 년도 1 차 실무그룹 미팅을 5 개 실무그룹(ESG, 인권, 환경, 반부패, 지속가능금융) 연합으로 개최했습니다. 1 차 실무그룹은 유연철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PwC Korea 권미엽 파트너의 'ESG 공시 기준 동향 및 기업 대응 전략', UNEP FI 임대웅 한국대표의 '택소노미와 그린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KB 증권과 HD 현대건설기계의 기업 ESG 체계 구축 및 활동 사례를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올 한해동안 실무그룹 주제 및 내용을 고민하고 논의해나갈 5 개 실무그룹의 Co-chair 를 소개하며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인사말



먼저,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이 참여 회원사에 환영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의 내재화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무그룹의 운영 의의를 소개하며, 녹색채권 등 다양한 섹터 자본의 근간이 되는 금융 부문의 ESG 대응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부터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을 추가 개설함을 설명했습니다.

2) ESG 공시 기준 동향 및 기업 대응 전략 - 권미엽 PwC Korea 파트너



PwC Korea 권미엽 파트너는 ESG 공시 기준 동향 및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3대 공시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국가별 공시 의무화 현황, 7 가지 기업 대응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모두 보고 범위로 중속기업까지 포함한 연결 기준을 공시할 것과,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4 가지 핵심 항목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거버넌스 체계의 경우, 이사회와 관리 감독과 경영진의 전략 통제성, 경영진과 이사회와의 소통 방식과 성과 평가에서의 반영 내용도 공시하도록 하므로 기업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이슈에 어떤 전략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권미엽 파트너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프로세스 마련, △공시 요구사항과 대응 현황 진단을 통한 격차 분석, △본사 및 중속법인 업무 계획 수립,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재무영향 분석 등이 필요하며, 완전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3) 탄소노미와 그린 비즈니스 전략 - 임대웅 UNEP FI 한국대표



UNEP FI 임대웅 한국대표는 택소노미 및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기후관련 정보 공시와 더불어,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그린 비즈니스로의 전환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 대 기업 중 상위 5 개의 기업들의 녹색 매출 비중과 녹색 투자 비중이 100%인 점을 미루어 보아, 그린 비즈니스로의 방향성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은 2023 년부터 녹색, 갈색, 가치중립적 비즈니스에 대한 공시를 통해 택소노미 정보의 공개를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EU 의 택소노미 가이드라인과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제활동별 녹색, 갈색, 중립 비즈니스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제품의 수명주기와 관련된 기술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인권과 반부패 관련 문제는 없는지, 세금 납부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의 이슈와 관련된 기준들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에게 있어 물리적 위험과 이행 위험 관점에서 작성된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는 오히려 잠재적 기후 기회라며,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와 기후적응 솔루션, 택소노미에 따른 비즈니스 이행계획, 자본적 지출(CAPEX) 활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그린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위해 Scope 1, 2, 3 투자 계획과 택소노미 활동 자본적 지출(CAPEX)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5) 금융을 통한 지속가능 가치 확산 - 김대돈 KB 증권 전략기획부 이사



KB 증권 김대돈 이사는 금융을 통한 지속가능 가치 확산이라는 주제로 KB 증권의 ESG 경영활동과 ESG 금융 투자를 위한 증권사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30 억 규모의 ESG 가치 확산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그룹과 연계하여 석탄 기업의 투자를 막는 등 및 인지도와 신뢰 자본을 통해 ESG 생태계의 확장에 기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ESG 펀드, △태양광 발전소 관련 펀드, △소셜벤처 대상 탄소 배출권 비즈니스 서비스, △대기업 대상 탄소배출권 거래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KB 증권이 ESG 기업금융 관련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고, ESG 생태계 확장에 더욱 노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돈 이사는 ESG 생태계도 자본으로 여겨져야 하고, 리더십과 커뮤니티 자본의 상호작용은 UNGC 한국협회의 실무그룹과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행동들이 커뮤니티 자본을 성장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기업들은 그린 비즈니스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고, 소셜 벤처를 육성·연계하는 것이 가치사슬을 통한 변화를 촉진시킨다고 제안하며 KB 증권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HD 현대건설기계 ESG 경영 활동 - 왕성준 HD 현대건설기계 ESG 경영혁신팀 팀장



왕성준 HD 현대건설기계 팀장은 HD 현대건설기계의 ESG 경영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ESG 규제에 대응하는 수준이 아닌 리스크와 기회를 비즈니스 전략에 연계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40년까지 전체 매출 중 친환경 제품 비중 97%까지 확대, △친환경 택소노미를 기반으로 친환경 제품 선도, △협력사 시설 투자 및 운영자금 지원, 공동기금 조성 등 협력사 품질 혁신, △글로벌 사업장 탄소중립 및 2025 K-RE100 달성 목표 수립,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제품 전 생애주기 친환경성 제고라는 목표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와 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대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SG 위원회 산하에 대표이사 및 부문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인 ESG 경영위원회를 소개하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요 전략 과제 선정과 모니터링 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실무그룹별 Co-chair 소개



마지막으로 2024 년 한 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실무그룹을 이끌어 나갈 5 개 실무그룹의 Co-chair 소개와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실무그룹별 Co-chair 는 아래와 같습니다.

- **ESG 실무그룹 Co-chair:** △두산에너지빌리티 정지영 수석, △애큐온캐피탈 정윤희 매니저, 하강건 매니저, △한국콜마 정재욱 팀장
- **인권 실무그룹 Co-chair:** △두산 김현정 수석, △롯데홈쇼핑 안남균 책임
- **환경 실무그룹 Co-chair:** △SK 하이닉스 민준기 TL, △LG 에너지솔루션 전인호 선임, △포스코홀딩스 공병수 차장
- **반부패 실무그룹 Co-chair:** △동아쏘시오홀딩스 김경민 책임, 안준규 책임, △한국무역보험공사 박성태 차장
-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Co-chair:** △DGB 금융지주 조고은 PM, △NH 투자증권 오금택 차장, 이환 대리, △KB 증권 송준호 부장

2024 년도 실무그룹 2 차 미팅은 6-8 월 중 개최될 예정(별도 공지)입니다.

2,3 차 미팅은 각 실무그룹별로 별도 일정에 따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니, 연초 신청하셨던 실무그룹별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그룹 문의 - gckorea@globalcompact.kr

- ESG /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 인권 / 반부패 실무그룹: 안일곤 과장 (070-4327-5057)
- 환경 실무그룹: 장한별 과장 (070-4327-9768)

자세히 보기

6. 자동차 산업 넷제로 정책 추진 라운드테이블 결과공유(3/14)

- 행사명: 자동차 산업 넷제로 정책 추진 라운드테이블
- 일 시: 2024년 3월 14일(목), 13:30-17:30
- 장 소: 전경련회관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 주요내용: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와 인플루언스맵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자동차 산업 넷제로 정책 추진 라운드테이블'이 3월 14일(목)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넷제로 전환에 관한 정책, 기술 동향, 기후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정책과 경영전략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인플루언스맵 딜런 테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의 넷제로 전환에 있어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며,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및 저장장치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부문의 넷제로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과 시장 혁신을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COP28에서 채택된 UAE Consensus 합의문에 내연기관을 대체할 무공해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사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도전과 기회를 공유하고 한국이 무공해차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박민혜 사무총장**은 넷제로 달성 목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전하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도 대한민국 전체 배출량의 13%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도로 수송에 여전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넷제로 실현을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독려했습니다.



1 부. ‘글로벌 자동차 부문 넷제로 정책 및 시장 동향



“미국 내 저공해 자동차를 향한 정책 혁신 리더십”의 주제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시드니 버지스 부집행관**이 기조발제를 통해 캘리포니아가 연방 기준과 별도로 자동차 배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유일한 주가 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무공해차 관련 규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현재 제조업체에 명확한 시장 방향성과 시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는 ▲Advanced Clean Cars II (규제, ▲충족 기준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제조업체에게 판매 가능한 잉여 크레딧 제공 정책, ▲저소득층 대상 저금리 대출 및 차량 구매 보조금 제공, ▲무공해 차량 공유, ▲내연기관 차량 교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인 넷제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언스맵 이세진 선임연구원**이 “IPCC 1.5 도 경로와 연관된 글로벌 자동차 정책 동향 및 자동차 부문의 대응 트렌드”의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인플루언스맵이 글로벌 주요 15 개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가 긍정적인 기후 정책 활동에 관여할수록 무공해차 생산량이 IPCC 1.5 도 경로에 따라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이러한 동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내연 기관 차량의 단계적 폐지 정책 및 무공해차 보급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긍정적인 기후 정책 참여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무공해차 생산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클라이밋그룹 EV100 도미닉 핀 시니어 정책 매니저**가 “기업 리더십을 통한 전기차 전환”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EV100은 현재 약 130여개의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의 넷제로 전환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기업이 운행하는 3.5 이하 차량 100%, 3.5t 초과 차량 50%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의 전기차 전환은 글로벌 탄소 배출 감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제조사와 투자자에 영향을 미쳐 전기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며, ▲전기차 보급 증대(내연기관차 판매 기간 명시

및 대안 마련, 전기차 의무 구매 비율 명시 등),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2 부. 한국의 자동차 부문 넷제로 정책 및 시장 동향



첫 순서로 **KB 경영연구소 채희근 팀장**이 “한국 자동차 시장 전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캐즘’ 현상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소비자의 편의와 효용성을 고려할 때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 ▲주행거리 개선, ▲충전인프라 확충, ▲합리적인 가격대 확보, ▲대형 상용차 위주의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배터리 순환경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이 “탄소중립, 대기질 개선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작년 4 월에 수립된 제 1 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송부문에 따라 2030 년까지 전기차 420 만대, 수소차 30 만대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를 2018 년 98 백만톤에서 2030 년 61 백만톤으로 37.8%의 감축할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무공해차 보급산업의 수요정체 극복 및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통한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 ▲전기차 사후관리 및 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의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공공 및 민간 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제 강화, ▲제조업체 무공해차 보급 목표 부여 및 기여금 부과,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3 부. 자동차 부문 넷제로 전환 정책을 위한 정부-기업 협력 라운드테이블



라운드 테이블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손영욱 대경지역본부장이 좌장, 시드니 버지스 부집행관, 류필무 과장, 채희근 팀장, 현대자동차 조영욱 탄소중립팀장, 네이버 임동아 대외/ESG 정책 이사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업의 넷제로 전환 목표 및 전략, ▲국내외 정책 동향, ▲향후 정책 개선 및 협력 사항, ▲투자 및 기술 트렌드 등에 관해 패널들에게 질문하며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완성차 제조사와 수요기업의 ▲기업의 넷제로 시대 자동차 산업 기여 방안, ▲자동차 넷제로 기술 개발 및 투자 전망, ▲전기차 보급 확대 관련 어려움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자동차 산업 넷제로 정책 추진 라운드테이블'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 감축의 주요 부문에 해당하는 자동차 산업의 넷제로 전환 가속화를 위해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기업과 정부의 전략 및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인게이지먼트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최하은 연구원 (T.02-749-2150/ hechoi@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7.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순환경제로의 전환 세미나 결과 보고(3/8)

- 행사명: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순환경제로의 전환
- 일 시: 2024년 3월 8일(금) 09:30-13:00

- 장 소: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 주 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한영국대사관
- 주요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한영국대사관이 함께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순환경제로의 전환’ 세미나를 3월 8일 개최하였습니다. 60여 개 기업의 실무진 90여 명이 참석한 본 행사는 배터리 원료의 공급을 안정화하고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후 배터리 분해, 금속자원 회수, 양극재 이용, 다시 배터리 제조로 이어지는 배터리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의 전략과 노력을 공유하는 장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1) 인사말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행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및 기업 실무진들을 환영하며, 기조 연설자인 제레미 포클링턴(Jeremy Pocklington) 차관과 다른 연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연철 사무총장은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며, 수입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배터리 재활용 기술 발전과 가치 사슬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가 국가 간 협력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로 여겨지며 통찰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세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2) 기조연설

제레미 포클링턴(Jeremy Pocklington) 영국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DESNZ) 차관은 '기업의 넷제로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넷제로와 1.5°C 경로를 지원하는 정부와 배터리 산업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금속 및 광업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과 기후 회복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1 차 원료 공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순환성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의 정부 관계자, 학계, 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배터리 산업을 상호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 정부정책 발표

첫 번째로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팀장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김희영 팀장은 환경, 경제, 그리고 공급망 측면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전기차 사용 후 재활용 및 원료 확보(육성) 정책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등 신성장 전략 ▲배터리 재활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릴리아 기우태리 리코브스키 영국산업통상부(DBT) 선임투자매니저가 “배터리 순환경제를 위한 영국의 전략” 발표를 통해 영국 정부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을 보여주는 두 가지 문서, ▲핵심 광물 전략과 ▲배터리 전략 문서를 소개했습니다. 릴리아 선임투자매니저는 이어서 폐배터리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폐배터리 사용 책임의 개념을 강화하고 수거 및 향후 처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EU의 배터리 여권 등 EU 규제 대응을 위한 방향성, ▲미국과 EU의 접근방식의 차이 및 광물 안보 파트너십의 중요성, ▲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기업 투자 사례에 관해 공유하였습니다.



4) 기업사례 발표

첫 번째로 유장용 두산리사이클솔루션 팀장이 두산리사이클솔루션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관해 발표하며 두산이 기술 차별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갖추고 친환경 공정을 적용하여 배터리 순환경제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관해 ▲리튬 회수 기술 개발 및 공정 과정, ▲높은 순도와 친환경 공정, 높은 회수율 등 공정의 특장점, ▲탄산 리튬 및 수산화 리튬 재활용 공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희림 에코프로 경영전략실장이 “이차전지 산업 동향과 에코프로의 산업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정희림 상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 ▲니켈과 리튬 원자재 가격 유동성으로 인한 리사이클의 필요성 증대, ▲리사이클 3 가지 사업군(전처리, 습식 및 제련, 전구체/양극재)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그룹 내 리사이클 전과정을 소개하며 증가하는 양극재 수요 및 공급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양극재 파트너십 전략, ▲IRA에 적합한 전구체 생산, ▲핵심 원재료(니켈, 리튬) 공급망 확보, ▲친환경 화학 물질 및 폐수 처리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펠 Minviro 최고경영자(CEO)가 “배터리 산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Minviro 는 영국에 본사를 둔 컨설팅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제공업체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한다는 사명으로 생애 주기 평가 (life cycle assessment)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로버트 펠 CEO 는 테슬라 등과 진행한 컨설팅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며,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재 생산업체와의 협력, ▲환경 핫스팟 분야의 탈탄소화 집중, ▲공급망 내 탄소 발자국 추적, ▲물 부족 및 토지 변형 등 기타 요인의 영향, ▲경제적 비용과 환경적 성과 사이의 균형적 전략들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패널토론

마지막으로 좌장인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김희영 팀장은 27년 2월부터 발효되는 EU 배터리 법에 따라 배터리 여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탄소 발자국이며, 중국에서 배터리 여권을 쉽게 접근하여 시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플랫폼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릴리아 기우태리 리코브스키 선임투자매니저는 정부 주도로 Faraday 배터리 연구소와 Advanced Propulsion Centre(APC)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 은행들도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등 스타트업의 다양한 자금 경로 탐색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유강용 팀장은 배터리 내부에 있는 전핵을 제거하기 위해 염수를 사용하며 생기는 불순물 발생 등의 다양한 이슈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전처리 공정이라며 안전 기술 개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의 원가 경쟁력이 후처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핵심 공정으로 더욱 신경써야하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정희림 상무는 해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공급망 확대 경험으로써 미국 배터리 재활용 업체 서바 솔루션즈(Cirba Solutions)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현지에서 전처리 후, 한국에서 후처리를 진행하여 전구체와 양극재를 생산하여 다시 미국 현지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Closed Loop System 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 파트너십으로 환경 인허가 해결 및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펠 CEO 는 수집하기 쉬운 데이터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Minviro 의 경우 채굴 및 금속 원자재의 업스트림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다운스트림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광업 및 금속 회사와 협력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 업무로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안 헤더링턴 국장은 APC 는 2013년에 시작한 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저탄소 자동차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상황이 조금씩 상황이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 재활용 소재 활용에 있어 시행 중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고, 특히 접근방식에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연구 개발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안성은 과장(T. 070-4327-9771, seann@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UNGC, '2024 SDG 선구자(SDG Pioneers) 캠페인' 발표



지난 4 월 3 일,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선도하는 기업인들을 조명하기 위해 '2024 SDG 선구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SDGs 달성을 향한 비즈니스 리더들의 혁신, 영향력 및 헌신을 기념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SDG 선구자들을 조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중요한 기업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산업과 지역을 아울러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는 캠페인 런칭을 크게 기뻐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잠보 사무총장은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 대응의 일선상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운영해오고 있는 SDG 선구자 캠페인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로 이끄는 개개인의 노력을 축하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선구자들을 격려함으로써, 다른 이들 또한 UNGC의 원칙을 준수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유의미한 행동을 취하길 바랍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UNGC 회원사라면 누구나 SDG 선구자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혁신적인 방안, 파트너십, 지지 활동 또는 영향력 있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SDGs 중 한가지 이상의 의제를 진전한 노력을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선정된 SDG 선구자들은 그 성취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동시에, 다른 기업들과 소통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SDG Pioneers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후보 지명 제출 관련 정보는 <https://unglobalcompact.org/sdgs/sdgpionee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국제노동기구(ILO), 생활임금 정책에 관한 합의 도출



유엔글로벌콤팩트(UNG)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 월 19-23 일 '임금정책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해 합의를 이룬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회의에서 ILO 의 구성원인 고용주, 근로자, 정부는 생활임금에 대한 통념적인 개념과 생활임금 산정 원칙 및 산출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공지](#))

이번 합의는 근로자, 가족, 지역사회 등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인 생활임금을 제공하고 촉진해 나가기 위한 UNGC 의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를 토대로, UNGC 는 UNGC 노동 원칙의 또 다른 협력 기관인 ILO 와 함께 소비자, 공급업체, 정부, 고용주 및 노동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가치사슬 전반의 근로 빈곤(working poverty)을 해결하고 생활임금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생활임금 정책에 관한 합의문(2024/3/13) 주요 요지

1. '생활 임금' 개념에 대한 합의

- 노동자가 거주중인 국가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 및 가족의 적절 생활 수준 영위를 위한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 시간 동안 수행한 근로에 대해 받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 ILO 의 생활임금 산정 원칙에 따라 산출되어야 합니다.

2. '생활 임금' 산출 방식에 대한 합의

- 생활임금은 증거 기반 방법론과 검증된 데이터 활용하고, 근로자 및 고용주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임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 및 현지 상황과 사회·경제·문화적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생활 임금' 이행 원칙에 대한 합의

- 생활임금은 사회적 대화와 유관 단체와의 교섭을 강화하고 임금 결정 기관의 역량 강화 등 ILO 임금 결정 원칙에 따라 달성되어야 합니다.
- ILO의 생활임금 원칙에 입각한 임금 산정 및 이행 과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와 경제적 요인이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한편, ILO는 Forward Faster 생활임금 목표를 지지하며, 전문가 회의 보고서내 비즈니스 리더들의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로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를 언급하였습니다. 기업의 생활임금 실현을 위한 UNGC의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에 참여해보세요! <https://forwardfaster.unglobalcompact.org/>

* ILO 공지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하였으며, 전문은 ILO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1. 기업 소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1962년 설립되어, 전세계 40여 개국에 빛과 물을 제공하며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산업의 기초 소재인 주단조에서부터 해상풍력, 원자력 등의 발전설비, 해수담수화설비, 환경설비 등 각종 산업 설비를 제작해 국내외 플랜트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2022년에는 기존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하며 새로운 에너지 기술로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했습니다. '두산에너지빌리티'(Doosan Enerbility)는 Energy와 Sustainability를 결합한 조합어이며, 그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Enable'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핵심 가치를 표현하면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만드는 에너지 기술로 인류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동시에 지구는 더욱 청정해지도록 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국내외 에너지 시장 환경과 내부 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가스터빈, 차세대 원전(SMR), 신재생에너지, 수소를 4대 성장사업 포트폴리오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두산에너지빌리티는 ESG를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경영 원칙으로 삼고, 경영 전반에 걸쳐 ESG에 기반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와 함께 환경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힘쓰고,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도모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ESG 관리지표별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성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Trend를 반영한 선제적 대응과 ESG 관리 체계의 강화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3개 분과로 ESG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과별로 최고경영진이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각 사업부(Business Group)에서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사례

[사회공헌 프로그램 '딜라이트']



두산에너빌리티는 회사의 사업과 연계된 사회공헌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 년 회사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테마를 '에너지'와 '빛'으로 정하고, 2023 년 두산에너빌리티의 정체성이 담긴 사회공헌 프로그램 '딜라이트(DELIGHT)'를 론칭했습니다.

딜라이트는 'DELIGHT-Doosan Enerbility Light'라는 의미로 빛과 에너지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기쁨을 주겠다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약속입니다.

딜라이트의 대표적 공헌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 전기 등 에너지를 선물하는 '에너지 바우처' 활동.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경제적 부담(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2023년에는 1254 개의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빛을 선물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안심 귀갓길'. 전기(빛)라는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취약지역에 조명설비 설치 및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활동입니다. 2023년에는 회사가 위치한 분당과 창원 지역에 각 1 군데씩 총 2 곳에 안심 귀갓길을 조성했으며, 지자체,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장기 프로젝트로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활동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하기 위하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고효율 기기 교체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주를 이루는 협력사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탄소감축 활동에 동참하는 한편, 사업 경쟁력도 높여 상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장학금'은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혁신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할 미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원자력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 원자력 학과의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에너지 관련 학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결연 아동복지시설 75 곳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분당과 창원 지역사회 보행장애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 사업장 인근 귀산동 해안가를 반려해변으로 지정하고 매년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경상남도 및 지역 농협과 연계하여 수확기 일손 수급이 어려운 지역 소재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역사회 니즈와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정체성이 담긴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고 이에 집중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4.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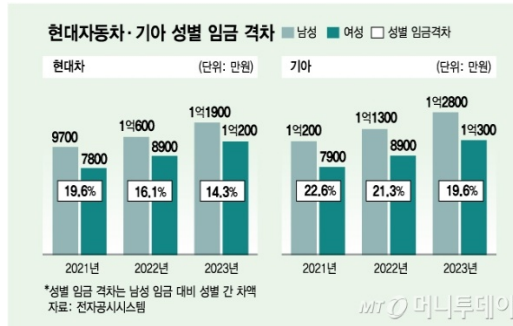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14년부터 UN Global Compact의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하기와 같이 UN SDGs 목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남자도 여자도 '평균 연봉 1억'...현대차, 성별 임금 격차 또 줄었다



- 현대차·기아의 남녀 임금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까지 격차를 좁혔으며 이는 대표적 남초(男超) 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 업계에서 고무적인 변화임.
- 2020년 현대차의 임금 격차가 21.4%였던 것에 비하면 3년만에 7.1%p(포인트) 감소했으며,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채용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으로 높은 직급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머니투데이

2. 삼성전자, 국제수자원관리동맹 최고등급 인증 사업장 7 개로 확대



-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이 지난해 3월 화성 캠퍼스가 처음으로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기흥·평택 캠퍼스, 중국 시안 사업장이 플래티넘 인증을 취득함.
- 이는 삼성전자의 사업장 용수 사용량 절감, 방류수 수질 관리, 물 관련 리스크 분석·저감 활동,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물 협의체 구축 등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임.

연합뉴스

3. LG 화학, 화학 업계 저탄소 공급망 구축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과



- LG 화학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화학업종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 및 관련 규제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임.
- LG 화학 관계자는 “LG 화학은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업으로서 저탄소 공급망 구축을 선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 경쟁력 강화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힘.

아시아경제

4.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사업장 직원 절반이 장애인"...한국타이어의 '상생'



- 장애인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타이어 업계 최초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를 설립하였으며, 전체 직원 중 57%가 장애인으로 구성됨.
-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를 위한 처우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구축을 위해 집중할 계획임.

뉴시스

5. “男 직원 육아휴직 의무”...롯데칠성, 매출 3 조원 비결은?



-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매출 3 조 2247 억원을 달성하였으며, 국내 종합음료기업 최초로 매출 3 조원 시대를 열었던 동력으로 ‘출산 및 육아 장려’, ‘일과 가정의 양립’, ‘구성원의 다양성’ 등을 위한 제도가 성장의 밑바탕이 됐다고 설명함.
- 롯데 전 계열사에서 시행되는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남성 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한 달간 의무적으로 휴가를 써야 하고 육아휴직 첫 달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음.

헤럴드경제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3 월 20 일부터 4 월 16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3 개사 입니다.

- 애큐온저축은행
- 세아상역
- 경남개발공사

2. CoP/CoE 제출회원

3 월 20 일부터 4 월 16 일까지 2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CoE (총 2 개)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한국 ESG 기준원

CoP (총 0 개)

※ UNGC 회원사는 2024 년도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4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로 전환되며, 12 월 31 일 이내에 제출시 다시 “Active” 상태로 회복됩니다. 12 월 31 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5 년 1 월 1 일자로 “제명(Delisted)”되오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이행보고서(CoP)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내에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ed)”됩니다.

※ CoP/CoE 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